

호황기에 다같이 생각하자



하늘은 언제나 인간이 원하는 대로 비나 눈을 내려주지 않는다. 뜨거운 여름 폭물이 메말라 죽도록 비한방울 내려주지 않다가 추수기에 접어들어서는 집이 쓸러가도록 폭우를 내리기도 하는 것이 자연 즉 하늘의 이치이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힘을 보노라면 자연법칙에 그대로 순응한 민족은 나태하고 가난에 허덕이지만, 자연법칙을 잘 탐구하여 과감한 도전을 시도한 민족은 달나라에도 가고 무시시한 강도 막아 농경 및 공업용수로 또는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땡땡거리고 살고 있다.

이제는 인간이 하늘에게 원하는 바를 제시하기 보다 하늘의 속성을 보다 빨리 간파하여 빈틈을

헤집고 들어가야만이 한정된 땅과 고갈되어가는 자원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양계산업 구조에 대한 모순 몇가지를 생각해 보자.

우선 최근 양계산업은 그런대로 호황으로 인하여 몸살을 치르고 있다. 외부에서 어떻게 보던간에 확실한 것은 닭이 없어 아우성이니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한다.

속담에 맑은 날에 비오는 날을 대비하여 우산을 준비하라고 했다. 역으로 굶은 날에 맑은 날을 위하여 우산을 준비할 양계인은 없을 터이니 일단 전자의 가정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할때 양계인들은 자성과 반성

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89년 4월을 기점으로 하여 채란업계 및 육계업은 그 이전에 대단한 생산물의 감량과 소비증가로 인하여 값으로만 비교할 때 정말 관찮은 경영시대를 맞았음에도 과거 불만과 원성의 대상인 유통구조의 불편성에 대한 개선에는 일말의 언급도 개선의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음은 납득이 안간다.

불황때는 수지가 맞지 않아서 못하고, 호황때는 돈버는 재미에 잊어버리고 하는 무관심이 수십년 되는 양계역사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계인을 포함한 우리 국민의 결함은 나를 떠난 전체 의식이 약간은 부족하다. 나만 생각하다 보니 남의 희생이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나아가 희생되는 상대방이 그대로 당한다기 보다 끝까지 같이 물속에 떨어지려는 물귀신 전법이 등장함으로써 사회는 불신이 팽배해졌고 산업구조는 협동을 원하게 되어가는데도 마음을 열지못하니 갈등이 어제나 오늘이나 연속되는 것이다.

그런대로 다른 산업은 담합이라고 오인할 만큼 유대강화가 기틀을 잡아가는데도 1차산업인 농업 그것도 축산업은 매출시장의 방대성에 비추어 산업에 종사하는 양계인들은 아직도 궂은 날을 위하여 우산을 준비할 채비는 하지않고 요행히 남이 하거나 저절로 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다.

이미 채란업계는 통계상으로 볼

때 (72주전 초생추사로 생산량)5월말부터 쏟아지게 될 계란으로 다시 불황이 올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왔다. 다행히 일본이나 구미 여러나라처럼 아침 식사에 계란을 먹는다면 혹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값의 폭락은 기정사실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7~8개월간 양계인들은 무엇을 하였을까? 나름대로 기계설비의 자동화를 하였다치더라도 궁극적으로 유통의 전근대성을 면키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 볼만하다.

시기적으로는 국제화시대라고 있으며 이미 양계산물의 일부가 문이 열렸다. 아울러 산업구조가 급속히 가공식품을 위주로 하는 외식편중 쪽으로 변화해가는데

이에 적절한 대응 방안도 생각해 보직하다.

기회가 한계에 이르면 그때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돈으로도 해결이 어려워진다. 산업 차원에서 볼 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분야가 있는가 하면 개인이 해결해야 할 것이 엄연히 있다.

장기간 지속되어온 호황이 불황으로 접어들기 전에 다같이 한가지 문제만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특란 농장수취 가격이 73원이 되었다고 그냥 좋아만할 일이 아닙니다. 다 같이 년중 73원 이상을 받도록 궁리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김용화> 양계

날씨안내(자동예보응답)

기상관서명	전 화 번 호	기상관서명	전 화 번 호
서 울	(02) 131	충 무	(0557) 2-0365
김 포	(02) 131	마 산	(0551) 131
인 천	(032) 131	광 주	(062) 131
수 원	(0331) 131	전 주	(0652) 131
청 주	(0431) 131	군 산	(0654) 131
대 전	(042) 131	목 포	(0631) 42-0365
서 산	(0455) 2-2365	여 수	(0662) 131
부 산	(051) 131	완 도	(0633) 52-0131
대 구	(053) 131	계 주	(064) 22-0365-6
안 녕	(0571) 52-0365	강 릉	(0391) 131
울 진	(0565) 82-0365	춘 천	(0361) 131
포 향	(0562) 131	원 주	(0371) 131
울 산	(0522) 131	속 초	(0392) 131
진 주	(0591) 131	울 릉	(0566) 2365